

조선에서 양명학 관련 문헌의 수용 양상

- 16세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eptance Patterns of Yangmingxue Related Books in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16th century -

김 시 내 (Kim, Si-nae)*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조선에서 양명학 관련 문헌의 수용 양상 |
| 2. 명대 양명학의 발생과 주요문헌 | 4.1 양명학 문헌의 수용 |
| 2.1 양명학의 발생 | 4.2 양명학 비판 문헌의 수용 |
| 2.2 양명학의 주요 문헌 | 5. 결 론 |
| 3. 조선에서 양명학의 수용 배경 | <참고문헌> |
| 3.1 16세기 사림의 학문적 경향 | |
| 3.2 『상산집』의 간행 |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명대에 양명학이 발생한 이래로 양명학 관련 문헌이 조선에 어떤 배경에서 유입되고, 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6세기를 중심으로 초기 수용 양상을 탐구하였다.

왕수인(王守仁)의 『전습록』을 위시한 양명학 문헌의 조선 유입은 16세기에 이루어졌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시도되던 때이다. 사회와 반정으로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면서 양명학 수용이 가능하였고, 동시에 성리학이 국가통치 이념으로 강화됨에 따라 양명학도 비판되었다.

『전습록』을 통한 양명학의 초기 수용에서는 충주 지역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우계학과에 속한 인물이 양명학 전승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양명학 문헌은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인쇄·출판되지 못하고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유성룡도 『양명집』을 필사하여 보관해 두고 읽었다.

침릉(詹陵)의 『이단변정』, 나흠순(羅欽順)의 『곤지기』, 진건(陳建)의 『학부통변』 등 양명학 비판 문헌은 정통 주자학 존숭의 분위기와 맞물려 급속활자 또는 목판으로 간행·배포되어 양명학 비판에 관한 논리가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6세기 조선에서 주류의 범주에서 벗어난, 혹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학설을 다룬 문헌들이 금서화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한 여러 사례 중에 양명학이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要語: 양명학, 전습록, 양명집, 상산집, 이단변정, 곤지기, 학부통변, 양명학문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cinekim@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initial acceptance pattern of Yangmingxue (陽明學) in 16th century: Focused on how literature on Yangmingxue got into Joseon Dynasty and how scholars reacted to it ever since Yangmingxue appeared in Ming Dynasty.

The inflow of Yangmingxue including *The Chuan Xi Lu* (傳習錄) by Wang Shouren (王守仁) into Joseon Dynasty occurred in 16th century. It is the time when the understanding of Neo-Confucianism got intensified and various levels of discussion had been attempted. The massacre of scholars and antipolitics evoked reflection on existing Neo-Confucian value and exploring new alternatives, and consequently Yangmingxue could be adopted. At the same time, Yangmingxue also got criticized, with Neo-Confucianism strengthened itself as the basis of national ruling order.

Scholars of Chungju region played a large role in the initial acceptance of Yangmingxue through *The Chuan Xi Lu*, and followers of SungHon (成渾) school served a certain role in passing down Yangmingxue. However, literature on Yangmingxue could not be published because it was suspected as a target of criticism. Ryu Seongryong (柳成龍) had to transcribe *A collection of Yang-ming's works* (陽明集) by hand and keep it to read.

Critical literature on Yangmingxue such as *Yi Duan Bian Zheng* (異端辯正) by Zhan Ling (詹陵), *Kun Zhi Ji* (困知記) by Luo Qinshun (羅欽順), and *Hsueh Pu Tung Pien* (學菴通辨) by Chen Chien (陳建), published and distributed as metal movable type or woodblock edition, engaging with reverence for original Zhuzixue (朱子學). There-through, the logic of literature on anti Yangmingxue could be easily spread.

This phenomenon shows it's tendency to distinctively accept studies in Joseon Dynasty. Yangmingxue could be one example in many cases which literature about reason and theory differed from mainstream Joseon Dynasty in 16th century got banned and thus couldn't be widely disseminated.

Key words: Yangmingxue, *Chuan Xi Lu* (傳習錄), Yang-Ming Studies, A collection of Yangming's works, A collection of Xiangshan's works, *Yi Duan Bian Zheng* (異端辯正), *Kun Zhi Ji* (困知記), *Hsueh Pu Tung Pien* (學菴通辨), Literature on Yangmingxue

1. 서론

양주(楊朱)¹⁾·묵직(墨翟)의 학문과 함께 육구연(陸九淵, 호는象山, 1139~1193)과 왕수인(王守仁, 호는陽明, 1472~1528)의 학문은 조선시대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었다.²⁾ 양명학(陽明學)을 수용하고자 했던 장유(張維, 1587~1638)는 “중국의 학술은 갈래가 많아 정학(正學)과 선학(禪學), 단학(丹學)이 있고 정주(程朱)를 배우는 자가 있고 육씨(陸氏)를 배우는 자도 있어서 학문하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식(有識)·무식(無識)의 구별 없이 책 끼고 글 읽는 사람은 모두 정주(程朱)를 외울 뿐 다른 학문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³⁾라며 조선의 학문적 분위기를 중국에 비교하여 지적하였다.

양명학의 문헌이 전래된 16세기의 조선은 조한보(曹漢輔, 생몰년미상)와 이연적(李彦迪, 1491~1553)의 무극태극(無極太極) 논쟁, 이황(李滉,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이 등장함으로써 성리학 탐구의 폭이 넓어진 시기이며, 동시에 양명학의 가장 중심적 텍스트인 『전습록(傳習錄)』이 읽히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조선에서 양명학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명학 문헌뿐만 아니라 양명학 비판 문헌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자학자의 비판 속에서 양명학이 16세기의 조선에 어떻게 자리 잡아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명학 문헌의 초기 유입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기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양명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 활동이 시도되었던 16세기 학문적 관심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조선에서 양명학 문헌의 유입 이후의 수용, 간행, 보급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양명학이 어떤 모습으로 확산되어 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양명학이라는 외래의 학문이 조선에 유입되고 수용되는 초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 시기는 양명학 문헌이 조선에 유입된 16세기로 한정한다. 그리하여 양명학의 심학적(心學的)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12-13세기 남송 시대 육구연의 학문인象山學(象山學) 관련 서적과 조선에서 양명학의 집단적 연구를 시도했던 강화학파(17~18세기)⁴⁾의 저술도 연구대상 시기를 벗어나므로 제외한다.

1) 중국과 일본의 인명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중국의 인명은 신해혁명(辛亥革命)을 분기점으로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1항, 외래어 표기법 해설). 일본의 인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에 따라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3항).

2) 『숙종실록보필정오』 숙종 32년(1706) 8월 5일(경인).

“若夫異端, 則楊墨陸王之謂也. 其學識及治心之法, 與儒者不同, 其害至於無父無君, 固當斥絕之不暇 ….”

3) 張維, 『谿谷漫筆』 卷1.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4) ‘강화학파’란 정제두로부터 정인보에 이르기까지의 양명학 연구 집단을 일컫는다. 강화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명학 관련 문헌 유입의 배경, 관련 인물, 에피소드 등을 검토하는 데에는 양명학의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와 조선왕조실록, 『십청헌집(十淸軒集)』, 『눌재집(訥齋集)』, 『퇴계집(退溪集)』, 『서애집(西厓集)』 등의 문집, 『미암일기(眉巖日記)』, 『치재일기(恥齋日記)』 등의 일기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간행 및 소장 기록을 조사하는 데에는 책판목록(冊板目錄)⁵⁾과 고서목록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명대의 양명학의 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16세기에 조선에 유입된 양명학 문헌과 양명학 비판 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분위기에서 조선에 유입 되었는지,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2. 명대 양명학의 발생과 주요문헌

2.1 양명학의 발생

공·맹의 선진유학 이후 훈고학 중심의 한대(漢代) 유학은, 경전의 자구해석에 치중하여, 옛 뜻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하는 만큼 현실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천성이 점점 결여되고, 전한말(前漢末)에 유입된 불교가 수(隋)·당(唐)대 이후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소옹(邵雍, 1011~1077),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 등의 연구 활동이 기반이 되어서, 주희(朱熹, 1130~1200)에 이르러 유학이 새롭게 집대성 되었는데, 이를 공자·맹자의 유학 즉 선진(先秦) 유학과 구별하여 신유학 또는 정주학·주자학이라 한다.

이 당시 주희와 육구연의 아호논쟁[鵝湖會談]⁶⁾으로 대표되는 수차례의 학술 논쟁은 당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희의 이론이 성즉리(性卽理)로 요약된다면, 육구연의 이론은 심즉리(心卽理)로 요약할 수 있고, 주희가 도문학(道問學: 학문의 추구)에 집중했다면, 육구연은 존덕성(尊德性: 덕성의 중시)에 집중한 것으로 두 사람의 사상을 정리할 수 있다.⁷⁾ 그렇기 때문에 “이학적(理學的) 경향인 주자학과 심학적(心學的) 경향인 양명학이 서로 대립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학술적 논변이

5) 鄭亨愚와 尹炳泰가 편찬한 『韓國冊板目錄總覽』에 책판목록(冊板目錄) 21종, 서지(書誌) 12종, 지지(地誌) 107종 등 모두 140종의 문헌에 나타난 책판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찾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해당 책판목록을 다시 조회하였다.

6) 아호논쟁[鵝湖會談]은 아호사(鵝湖寺)에서 주희와 육구연이 공부 방법에 대하여 펼친 논쟁과 그 이후에 동일한 주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벌인 논쟁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1175년(淳熙 2) 여름에 1차 아호사 모임에서의 논쟁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논쟁이 있었다(박경환, “공부 방법론으로서의 존덕성과 도문학,”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4), 238).

7) 풍우란 지음,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하』 (서울: 까치글방, 2011), 583-590.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어 동아시아 근세 유학사에서 특징 있는 사상의 두 흐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⁸⁾ 하지만 주자학 체계의 광대함과 논리적 치밀함에 비교하였을 때 상산학은 주자학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원대(元代) 인종은 1313년 11월에 조서를 내려 과거시험에 주희의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註)』를 쓰도록 함으로써 주자학이 관학으로 채택되었다.⁹⁾

몽고를 멸망시킨 후 천하를 통일한(1368) 명대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몽고족의 풍습을 제거하고 제도와 사상을 엄격하게 재정비하였다. 학교를 설립하고, 육유(六諭)를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주자학을 장려함으로써 문치주의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3대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1360~1424)는 호광(胡廣, 1370~1418년), 양영(楊榮, 1371~1440), 김유자(金幼孜) 등에게 명하여 『사서대전(四書大全)』과 『오경대전(五經大全)』을 편찬하게 하였다. 주희와 주자학파들의 주석을 모은 주해서인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에서 과거시험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주자학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자학에 대한 의구심으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주자학에서 중시하던 주지(主知)적인 궁리(窮理) 보다는 실천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풍조는 설선(薛瑄, 1389~1464)에서 시작하여 오여필(吳與弼, 1391~1469), 호거인(胡居仁), 누량(婁諒, 1422~1491)에서 진헌장(陳獻章, 1428~1500), 담약수(湛若水, 1466~1560), 왕수인으로 이어진다.¹⁰⁾ 이들 중 육구연의 학문을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진헌장에서부터이다.¹¹⁾

왕수인은 어려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주자학을 공부했다. 28세(1499년)에 진사가 되고, 33세(1504년) 때 병부무선사주사(兵部武選司主事)가 되었는데, 이 때 담약수와 교류하였다. 35세(1506년) 때에는 효종(孝宗)이 죽고 14세의 무종(武宗)이 즉위함에 따라 환관 유근(劉瑾) 일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권을 농락하였다. 난징[南京]¹²⁾ 과도관(科道官)인 대선(戴銑)과 부언휘(薄彥徽) 등 20명의 관리들이 상소를 올려서 유근을 규탄하였으나 모두 하옥되었고, 왕수인이 대선을 구하려는 상소를 올린 것에 유근은 분노하여 왕수인을 하옥시킨 뒤 궁전 뜰에서 정장(廷杖) 40대를 때리고 구이저구성[貴州省] 용장(龍場)으로 귀양 보냈다. 용장에서 묵묵히 정좌(正坐)하면서 『대학(大學)』의 한 구절인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왕수인의 체험이 훗날에 ‘용장오도(龍場悟道, 용장에서 도를 깨달음)’라고 널리 일컬어진다.

8) 최재목, “『진습록』: 우리 글로 만나는 왕양명, 양명학의 진면목은?,” 『오늘의 동양사상』 제9호(2003. 9), 257.
 9) 『中國歷代經籍典』(臺北: 臺灣中華書局, 1960), 1417-1418; 송정숙, “韓國에서 『大學章句』의 受容과 展開樣相,” 『書誌學研究』 제5·6합집(1990), 333에서 재인용.
 10) 동양사학회, 『개관 동양사(概觀 東洋史)』(서울: (주)지식산업사, 2004), 236-237.
 11) 풍우란(2011), 591-593.
 12) 중국과 일본의 지명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였다(『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2항). 일본의 지명은 인명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에 따라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3항).

주희는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해 모든 사물을 연구해 그 이법(理法)을 깨닫는 것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학문연구를 중시했다. 그에 반해서 왕수인은 이 ‘용장오도’를 통해서 ‘리(理)’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심즉리(心卽理)의 학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곧 리(理)이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굳이 학문을 통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마음의 부정(不正)을 바로잡아 타고난 본연의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주관적 수양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왕수인의 학문은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유구연-진헌장-담약수로 전해오는 심즉리(心卽理)의 사상이 왕수인의 깨달음에 촉발제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심즉리설을 토대로 타고난 본연의 지의 실현을 중시하는 치량지설(致良知說)과 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중심으로 양명학이 전개되고 양명학파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명대 중기 학자들이 주자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유구연의 학문을 공부하고 나아가 양명학이 형성된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도 관련이 있다. 명대 중기 이갑제(里甲制)¹³⁾가 해체되면서 특권적인 대지주가 나타나고, 대지주의 수탈에 대한 농민의 반란으로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양명학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한 상인계층이나 무신들처럼 다원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긍정하던 사람들은, 중앙집권적이고 객관적 질서를 중시하는 주자학과는 달리,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는 양명학에 깊은 호감을 지녔던 것이다.¹⁴⁾

2.2 양명학의 주요 문헌

왕수인과 그의 제자들이 남긴 양명학 문헌에는 『전습록』(1518), 『고본대학(古本大學)』(1518),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1518), 『양명선생칙언(陽明先生則言)』(1565),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集)』(1572) 등이 있는데, 이 중 주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습록』, 『고본대학』, 『주자만년정론』의 편찬과 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전습록』의 편찬과 간행

양명학을 대표하는 『전습록』은 왕수인의 강의내용과 왕수인이 친구나 제자들과 학술을 토론한

13) 이갑제는 중국 명대의 향촌 지배제도를 말한다. 농가 110호를 1리(里)로 하고 부유한 10호를 이장호(里長戶)라 하여 차례대로 이장을 맡게 하고,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각각의 갑을 담당한 갑수(甲首)를 맡게 하여, 매년 이장 1명과 갑수 10명이 리 안의 황책 작성, 조세 징수 등을 맡게 했다. 이갑제를 통해서 명 초 조정은 향촌지배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신성곤·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과주: 서해문집, 2016), 243).

14) 강웅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서울: 민음사, 2014), 92-93.

서신 등을 왕수인의 제자들이 모아서 편찬된 것이다. 왕수인의 애제자로 『전습록』의 서문을 쓴 서애(徐愛)는 『전습록』이 간행되기 전에 요절하였고, 1518년(明 正德 13) 8월에 왕수인의 제자 설간(薛侃)이 서애, 육징(陸澄)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왕수인의 어록을 모아 장시성(江西省) 공현(贛縣)에서 『전습록』을 간행하였다.¹⁵⁾

『전습록』은 단행본의 형태로 전래하기도 하고, 『양명선생문집(陽明先生文集)』, 『양명선생전서(陽明先生全書)』, 『양명전서(陽明全書)』, 『양명집(陽明集)』,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 『왕양명선생문집(王陽明先生文集)』, 『왕양명선생전집(王陽明先生全集)』,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등 문집에 수록되어 전래하고 있다.

2.2.2 『고본대학』의 편찬과 간행

『대학(大學)』은 『중용(中庸)』과 함께 『예기(禮記)』의 한 편이었다. 『예기』는 전한(前漢)시대의 대덕(戴德)이 전한 85편의 『대대예기(大戴禮記)』와 그의 조카로 알려진 대성(戴聖)이 전한 46편의 『소대예기(小戴禮記)』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전국시대 말에서 진(秦), 한(漢)에 걸친 제도, 관습, 예(禮)에 관한 이론, 정치, 학술 등에 관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대학』은 송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에 의해 『예기』에서 독립되어 『대학광의(大學廣義)』라는 단행본의 모습을 최초로 갖추게 되었으나 현전하지 않는다.¹⁶⁾ 이후에 정호와 정이에 의해서 해석이 보완되고 구성이 정리된 『대학정본(大學定本)』에 주희가 탈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134자를 보충하여 자신의 규칙에 따라서 새롭게 편성, 전 편에 주석을 달아서 만든 것이 『대학장구(大學章句)』이다. 『대학장구』는 경(經)1장(章)과 전(傳)10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1장은 공자의 말씀으로 3강령과 8조목이고, 전10장은 증자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경1장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¹⁷⁾

이렇게 하여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대학』은 『예기』의 한 편이었던 고본(古本) 『대학』과 주희에 의해서 개정된 『대학장구』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희의 『대학장구』만이 원대와 명대의 과거시험 교재로서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왕수인이 용장에서 귀양 생활을 하는 중에, 주희의 『대학장구』가 원래의 뜻과 괴리가 있다고 파악하고 고본 『대학』을 치밀하게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단지 『예기』 중 한 편으로, 경전에서 따로 구분된 책이 아니며, 『예기』 속의 한 편에 있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고본대학(古本大學)』을 편찬하여 1518년에 간행하였다. 왕수인이 서문을 직접 지었으며, 『대학문(大學文)』 한 편과 책의 본문 옆에 해석[旁注]을 달았다. 특히 『대학』

15) 전습록의 간행과 구성에 대해서는 최재목, “『傳習錄』에 대하여,” 『陽明學』 제3호(1999. 12), 143-158에 자세하다.

16)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13-15.

17) 송정숙, “『대학연의(大學衍義)』가 조선조(朝鮮朝) 통치이념서(統治理念書) 편찬에 미친 영향,” 『書誌學研究』 제20집(1996. 6), 173.

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 중에서 ‘친민(親民)’, ‘격물(格物)’, ‘치지(致知)’에 대하여 주희와 달리 해석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왕수인의 『고본대학(古本大學)』 편찬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정신과 『예기』의 한 편이었던 고본 『대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작업이지만 장(章)과 구(句)의 나눔과 해석상의 주요 쟁점은 고본 『대학』과 다르며, 주희의 『대학장구』와도 다르다. 『대학』을 통해서 주희는 결과적으로 본성(本性)의 회복을 통한,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이룩하려 하였으나, 왕수인은 심학(心學)으로서 치량지설(致良知說)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¹⁸⁾

2.2.3 『주자만년정론』의 편찬과 간행

1175년에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의 주선으로 주희와 육구연은 강서지방의 신주(神州)에 있는 아호(鵝湖)에서 만나서 서로의 학문을 논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주희의 주자학과 육구연의 상산학은 도문학(道問學)과 존덕성(尊德性), 이학과(理學派)와 심학과(心學派)의 상호 대립적인 관점에서 과별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풍우란(馮友蘭)에 따르면, 도학(道學) 가운데 이학(理學)은 주자가 집대성했고, 심학(心學)은 양명(陽明)이 집대성했는데, 송대와 원대가 이학(理學)의 전성기였다면, 명대는 심학(心學)의 전성기로 볼 수 있다.¹⁹⁾

또한 명대에는 육구연의 학문을 활성화시켜서 주자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타남에 따라서 도문학(道問學)을 중시하던 주희가 만년에는 존덕성(尊德性) 위주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주자만년정론설’이 제시되었는데, 이 가설의 선구적인 제안자는 왕수인이 아닌 정민정(程敏政, 1445~1499)이다.²⁰⁾ 주희와 육구연이 초년에는 의견이 달랐으나 만년에는 의견이 합치해 갔다는 가정에 맞추어 주희와 육구연의 논쟁과 사고 진행과정을 편집한 책이 『도일편(道一編)』이고, 『심경부주』는 『도일편』의 관점을 확대해 나간 후편에 해당한다.²¹⁾ 『도일편』의 판본에는 후이저우(徽州)에서 판각한 정민정의 원본과, 왕수인의 문인들이 무극(無極)을 논한 일곱 통의 편지를 뽑아 푸저우(福州)에서 판각한 별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별본을 통해서 양명학자들은 정민정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선구자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고, 왕수인이 『주자만년정론』을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18) 김진성, “『대학(大學)』의 경전(經典) 해석학적(解釋學的) 연구(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5집(2006. 4), 140-157.

19) 풍우란(2011), 593.

20) 金洛眞, “程敏政 사상의 朱陸 和會의 특성과 조선 성리학자들의 반응,” 『儒教思想研究』 제31집(2008. 3), 254-255.

21) 金洛眞(2008), 255.

22) 정민정에서부터 왕수인에 이르는 시간적 차이만큼이나 이들의 학설과 논리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도일편』과 『주자만년정론』은 도문학 위주의 공부에 도의 일상성과 체득을 저해하기에 주희가 만년에 존덕성 위주의 공부를 지향하였다는 주장과, 유학의 이론적 공소화에 맞서 존덕성이 근본 목적임을 환기시키고 실천유학을 지향한 점, 도문학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金洛眞

『주자만년정론』은 왕수인이 1515년에 편집하여, 3년 뒤인 1518년에 간행되었다. 『주자만년정론』은 『주자문집(朱子文集)』에서 주희가 장식(張栻, 1133~1180), 여조겸(呂祖謙, 1137~1181), 육구연, 황간(黃幹, 1152~1221) 등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면서 주고받은 편지글 34편과 부록으로 오징(吳澄)의 글 한 편을 추가하여 구성했다.²³⁾

『주자만년정론』의 핵심은 “주자의 경전 해석 및 성리학 이론에는 초년과 만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 만년의 설을 정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주자 만년의 생각이 동시대 육구연이나 왕수인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²⁴⁾ 이 주장이 제기된 뒤 명대의 나흠순(羅欽順, 1465~1547)과 진건(陳建, 1479~1467)으로 시작하여 청대에 이르기까지 주자학자들은 왕수인의 『주자만년정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주자만년정론』은 단일본으로 편찬되었지만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 卷7 「문록(文錄)」에 수록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3. 조선에서 양명학의 수용 배경

3.1 16세기 사림의 학문적 경향

조선왕조는 불교적 지도이념 대신에 주자학적 유교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고려조의 불교세력을 배척할 수 있는 이론으로 주자학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발했다. 거둬되는 사화로 사림들은 한양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기묘사화 이후 김안국(金安國), 김세필(金世弼), 이요(李瑤), 이언경(李彦憬), 박영(朴英), 이약영(李若永), 허초(許礎) 등 사림은 기존의 성리학에 대하여 반성하고 새로운 성리학을 모색하면서 산림에 은거하여 『심경부주(心經附註)』를 공부하였고, 이황 또한 33세 때(1533년) 처음 『심경부주』를 접한 뒤 낙향한 5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토론하여 66세(1566년)에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지었다.²⁵⁾ 『심경(心經)』은 송대 주희의 재전재자인 진덕수(陳德秀)가 1234년에 편찬한

(2008), 276-277.).

23) 이상의, “왕양명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에 대한 새로운 비판,” 『한국사상과 문화』 제18집(2002. 12), 353-359.

24)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서울: ㈜이학사, 2005), 166-168.

25) 『심경후론(心經後論)』은 이황이 그의 제자인 조목(趙穆)이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읽다가 그 가운데서 정민정의 사람됨에 문제가 있으며 그의 저작인 『도일편(道一編)』과 『심경부주(心經附註)』의 내용에 육구연의 상산학으로 깊이 경도된 것이 있음을 지적한 내용을 들어 정민정과 그의 학설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절정해오자 이에 대해 답한 글이다. 여기에서 이황은 정민정이 과거문제를 판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심경』과 더불어 『심경부주』의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정민정이 이 책의 맨 마지막 『존덕성재명장(尊德性齋名章)』의 ‘안(按)’에서 주희의 학설을 초년과 만년으로 나누고서 존덕성 공부 중시의 입장을 만년설로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형식 없이 긴 한 문단의 글 속에서 『심경부주』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생각을 차분히 밝힌 것이다(홍원식

것으로, 마음 공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사서(四書)』, 『삼경(三經)』, 『악기(樂記)』 주돈이, 정호(程顥), 정이(程頤), 범준(范浚), 주희의 글에서 37개를 뽑아 장으로 만들고, 그 아래 송대 제현들의 학설을 주(註)로 단 것이다.²⁶⁾ 왕수인보다 먼저 ‘주자만년정론설(朱子晚年定論說)’을 주장했던 정민정은 이 『심경』에서 진덕수(陳德秀)가 단 주에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여 송대 유현들의 말 중 중요한 것들을 가려서 주를 더 보태고, 책 앞에다 진덕수의 『심경찬(心經贊)』과 원대 학자인 정복심(程復心, 1257~1341)의 『심학도(心學圖)』를 덧붙여 1492년에 『심경부주(心經附註)』를 편찬하였다. ‘주자만년정론설’과 함께 ‘주륙화회론(朱陸和會論)’²⁷⁾을 주장하기도 했던 정민정은 『심경부주』에 정통 정주학자들의 견해와 육구연이나 육구연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견해도 포함하였다.²⁸⁾

기묘사립들은 사장학보다 이학(理學)을 중시하고 성리학의 실천윤리를 강조하였다.²⁹⁾ 고려 말에 전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³⁰⁾ 『근사록(近思錄)』이 일반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 또한 조선 전기 훈구파의 사장(詞章) 중심의 학문을 비판하고 신유학의 요체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중종대 사립파에 의해서이다.³¹⁾ 1516년(중종 11년) 9월 홍문관에서 『근사록』을 올린 것에 대해서 중종은 “이 책은 심학(心學)에 매우 긴요한 것”³²⁾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에 중종과 시강관(侍講官) 유보(柳溥)가 심학과 관련하여 『근사록』을 중요하게 언급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밤의 경연(夜對)에서 중종은 “(『근사록』은) 깊이 생각하여 반복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³³⁾ 이에 대해 유보는 “이는 곧 성리학의 기본이니, 항시 체념(體念)하신다면 옛 제왕들의 심학(心學)의 전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유지를 살피서 마음 다스리는 궁극에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서울: 예문서원, 2007), 35-45).

26) 홍원식(2007), 14.

27) 명대에 이르러서, 주희의 논적이었던 육구연의 학문을 활성화시켜서 주자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장된 것이 주륙화회론이다. 주륙화회론에 따르면, 주희와 육구연은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남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본다(김낙진(2008), 254-255).

28)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8), 11-13.

29) 박홍갑, “16세기 전반기 정국 추이와 충주사립의 피화,” 『史學研究』 제79호(2005. 9), 141-142.

30)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신유학이 유입되기 시작한 고려 말에 『근사록(近思錄)』이 전래되어 1370년(공민왕 19)에 진주목사 이인민(李仁敏)이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4책으로 번각한 판본이 가장 이른 시기의 우리나라 판본이다. 이후 1435년(세종 17)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허조(許稠)의 건의에 따라 1436년(세종 18) 6월에 초주갑인자본으로 인출된 것이 조선시대 『근사록』 출판의 시작으로, 세종은 즉위 초부터 『근사록』을 중시하여 경연에서 강독하게 하였다(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166-168).

31) 옥영정, “동빈문고의 中國鑿刻本과 그 가치: 『近思錄』과 『韻府群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2012. 8), 147.

32)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9월 29일(정미).

“弘文館進文宗大王所覽點切近思錄, 上曰 此書甚切於心學, 且先王用功處, 尤宜講論.”

33)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9월 29일(정미).

“若以大學衍義, 比高麗史, 則雖不侔, 東國君臣賢否昭然, 可以勸懲, 當畢講也. 凡史記, 讀之易解, 唯此性理之書, 近思錄. 非沈潛反覆, 莫之能解.”

도달하기를 구해야 하고, 심상히 여겨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³⁴⁾

이처럼 16세기는 사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경』과 『근사록』으로 심화, 확대되는 시기였으므로 심학(心學)이라 일컫는 양명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3.2 『상산집』의 간행

1517년(중종 12)에 한효원(韓效元, 1468~1534)은 원자(元子)를 교양하는 글을 올렸는데 사부(師傅)에 대한 예의를 논하면서 “상산(象山) 육씨(陸氏)는 이르기를 ‘그의 학문을 논함이 그 스승을 논함만 같지 못한 것이나, 스승을 얻고서도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또한 스승을 허물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하며 육구연의 말을 인용하였다.³⁵⁾

1542년(중종 37)에 김안국은 중종에게 “『상산집』은 송조의 거유 육구연이 지은 것인데, 선생은 주자와 같은 때에 덕성을 높이는 데에 전심하여 왕복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주자와 취지가 다르기는 하나 심성의 학문은 이에 따라서 강명(講明)할 수 있으니, 학자가 정자(程子)와 주자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데에 이 문집을 참고하면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⁶⁾ 다른 책들과 함께 『상산집』은 도서관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³⁷⁾ 김안국의 문집에도 “(『상산집』을) 인출하여 진상하고 문무루(文武樓), 흥문관, 성균관 등에 나누어 주었다.”³⁸⁾라고 한 것을 볼 때 『상산집』이 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효원과 김안국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양명학의 심학적(心學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산학은 당시에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4)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9월 29일(정미).

“待講官柳溥曰, 此乃性理之本源, 常常體念, 則古之帝王心學之傳, 可得矣. 非徒務文字而察其要指, 以求至乎治心之極, 不可以爲尋常而忽之也.”

35)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1월 19일(을미).

“象山 陸氏曰 論學, 不如論師, 得師而不能虛心委己, 則又不可以罪師.”

36) 『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5월 7일(정해).

“象山集, 宋朝巨儒陸九淵所著, 先生與朱子一時, 專心於尊德性. 往復辨論, 雖與朱子異趣, 心性之學, 因得以講明. 學者崇尚程, 朱之教, 參考此集, 則不無有益.”

37) 『상산집』과 함께 김안국이 도서관 간행 목록에 포함시킨 책으로는 『춘추집해(春秋集解)』(명(明), 진철(陳喆)), 『대명률독법(大明律讀法)』, 『여씨독서기(呂氏讀書記)』(송(宋), 여조겸(呂祖謙)), 『고문관건(古文關鍵)』(송(宋), 여조겸(呂祖謙)), 『황극경세서설(皇極經世書說)』(명(明), 주은로(朱隱老)), 『역경집설(易經集說)』, 『지재집(止齋集)』(송(宋), 진부량(陳傅良)), 『적성논간록(赤城論諫錄)』(명(明), 사탁(謝鐸)·황세현(黃世顯)), 『고문원(古文苑)』(당대 사람(唐人)), 『초씨역림(焦氏易林)』(서한(西漢) 초공(焦贛)), 『산해관지(山海關志)』, 『안씨가훈(顏氏家訓)』(북제(北齊) 안지추(顏之推)) 등이었다(『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5월 7일(정해)).

38) 金安國, 『慕齋集』 卷15, 『慕齋先生行狀』.

“京使臣收買書冊印頌議: 象山集六冊. 右冊, 宋朝巨儒陸九淵所著, 先生與朱子一時, 專心於尊德性, 與朱子往復辨論. 雖與朱子異趣, 心性之學, 因得以講明, 學者崇尚程朱之教, 參考此集, 則不無有益. 量數印出, 進上及文武樓, 弘文館, 成均館分藏外, 餘件略加頒賜似當.”

4. 조선에서 양명학 관련 문헌의 수용 양상

4.1 양명학 문헌의 수용

조선에 양명학 문헌으로는 1520년 전후에 유입된 『전습록』이 처음이다. 『전습록』의 유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남한은 “『전습록』은 명종말 전후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능화, 유명중, 이병도, 다카하시 도오루(高橋 亭) 등의 논저에서 종래 주장된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⁹⁾

오종일은 박상(朴祥, 1474~1530)의 『눌재집』 「연보」 48세(1521년)조에 실린 「변왕양명수인전습록(辨王陽明守仁傳習錄)」에서 시를 통해 『전습록』에 관하여 논변한 사실과, 김세필(金世弼, 1473~1533)의 『십정헌집』에 실린 박상과 주고 받은 시들(「聖住寺別訥齋」, 「和訥齋」, 「和訥齋 二首」, 「又和訥齋 九首」, 「用訥齋韻送朴評事十二首」, 「寄訥齋 四首」, 「贈訥齋 十首」, 「奉邀訥齋」, 「次訥齋韻 二首」, 「酬訥齋 三首」)을 근거로 1521년(중종 16) 이전에 양명학 문헌이 전래되었음을 밝히고, 김세필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전습록』에 관하여 의논한 박상을 양명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최초의 학자로 밝혔다.⁴⁰⁾

오성종은 김세필이 1519년(중종 14) 가을에 사은사로 명왕조에 가서⁴¹⁾ 1520년(중종 15) 봄에 돌아왔는데,⁴²⁾ 이때 『역경』과 『중용』을 전해(箋解)한 송·원·명대 유학자들의 저술을 널리 구입하여 돌아올 때⁴³⁾ 이 책들 가운데 당시 명왕조에서 1518년 간행된 왕수인의 『전습록』 초간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⁴⁾

박상의 『눌재집』에는 “양명의 글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자 우리나라 학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박상)선생이 김세필과 함께 『전습록』을 읽어 보고 선학(禪學)이라 변척(辨斥)하며 주고받은 시 세 수가 있다.”⁴⁵⁾라는 기록이 있다.

김세필은 과거 급제 후 언관직에 임명되었는데 1504년(연산군 10) 폐비 윤씨의 묘호(墓號)를 회묘(懷墓)에서 회릉(懷陵)으로 높이는 것에 반대의 의견을 표한 일로⁴⁶⁾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

39) 윤남한(1982), 115-136.

40) 오종일, “양명(陽明) 전습록(傳習錄) 전래고(傳來考),” 『철학연구』 제5집(1978), 67-86.

41) 『中宗實錄』, 중종 14년(1519) 10월 13일(계유).

42) 『中宗實錄』, 중종 15년(1520) 3월 20일(무신).

43) 金世弼, 『十清軒集』 卷4, 「附家先記聞」.

“先生前後朝天, 一以質正官, 一以聖節使, 赴京, 多購宋·元·明諸儒箋解易經中庸文字而歸. 蓋先生於諸經四書之中, 尤喜二書, 終身用力, 故廣求諸家箋說以來云.”

44) 오성종은 김세필이 1519년 중국에 다녀온 것에 주목하여 “『전습록』의 初傳者是 김세필이고, 초전 시기는 중종 15년(1520) 김세필이 명에서 귀국하던 때로 소급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오성종(1989), 90-91).

45) 朴祥, 『訥齋集』, 附錄 卷3, 「敘述」.

“王陽明文字, 東來未久, 東儒莫知其爲何等語, 先生與金十清, 見其傳習錄, 斥謂禪學, 有酬唱三絕.”

도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복직되었다. 1519년(중종 14)에 김세필이 중국 사신으로 나가있는 사이⁴⁷⁾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이 일로 조광조가 사사(賜死)된 것⁴⁸⁾에 대하여 1520년(중종 15) 귀국한 후 경연에서 중종에게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내쳐서 징계하는 것이 옳았을 것인데, 사사(賜死)까지 하셨으니 지나칩니다”⁴⁹⁾고 간언한 것을 계기로, 1520년(중종 15) 9월 23일에 장형(杖刑)을 받고 이번에는 충청도 음죽현(陰竹縣) 유춘역(留春驛)에 유배되었다.⁵⁰⁾ 1522년(중종 17)에 유배에서 풀려나 충주(忠州)의 지비천(知非川)에 터를 잡았는데,⁵¹⁾ 이 때 충주목사로 있었던 박상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공자당(工字堂)’을 지었고, 이 공자당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였다. 『십청헌집』에는 박상과 주고받은 시 10편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친근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박상과 김세필의 『전습록』 독후 토론도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공자당’에는 기묘사화를 피하여 충주로 내려 온 사람⁵³⁾이 모여들었으니, 이자(李耜, 1480~1533), 이연경(李延慶), 이약영(李若永), 허초(許礎) 등과⁵⁴⁾ 여주(驪州)에 거주하고

46) 『연산군일기』, 연산 10년(1504년) 3월 23일(갑신).

47) 실록에 따르면 중종14년 10월에 출국하여 이듬해 3월에 귀국했다(『중종실록』, 중종 14년(1519) 10월 13일, 『중종실록』, 중종 15년(1520) 3월 20일).

48) 『중종실록』, 중종 14년(1519) 12월 16일(병자).

49) 『중종실록』, 중종 15년(1520) 9월 13일(정묘).

“趙光祖，新進喜事之人也，然豈有奸心？但未涉世，而學問不足，故卒至於誤國事爾。初則尊寵無比，而一朝斷然賜死。書之史策，以傳萬世，萬世之下，謂之何如？臣未曾識此人，頃於經筵見之，爲人輕浮，雖大臣之言，必奪而自專之。臣之私心以爲不肖人也。然置之弘文館五六品之列，出入六曹而試可，則豈是不用之才哉？有過有罪，則斥逐而懲之可矣，至於賜死過矣。若金湜之奸妄，不可不置刑，如光祖者，豈有奸心？然未知自上以此爲過乎？恩寵如彼，而一朝賜死，事甚慘酷。雖微細罪囚，豈忍如是乎？自此以後，臣恐朝廷氣色慘慘也。雖有知遇之臣，何能安心自恃？”

50) 『중종실록』, 중종 15년(1520) 9월 23일(정축).

“徙金世弼于留春驛.”

51) 金世弼, 『十清集』, 『附錄』.

“先生神道碑銘: 壬午, 先生蒙宥, 仍居于忠州知非川上, 自號知非翁, 及後, 朝廷收斂黨人, 處先生以樞府, 入京謝恩, 卽還, 杜門以沒其世.”

52) 『十清軒集』에 실린 박상과 주고받은 시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聖住寺別訥齋』, 『和訥齋』, 『和訥齋二首』, 『又和訥齋九首』, 『用訥齋韻送朴評事十二首』, 『寄訥齋四首』, 『贈訥齋十首』, 『奉邀訥齋』, 『次訥齋韻二首』, 『酬訥齋三首』(오종일(1978), 75).

53) 충주를 비롯한 충청 내륙지역에 기묘사립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 배경에 대하여 박홍갑(2005)은 여말선초를 대표하던 유학자인 이승인이나 권근이 충주에 정착한 이래 성리학으로 혼도된 재지사족의 활동이 왕성할 수 있게 된 점, 지배층들의 농장이 고려 말에는 근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조선 초기 한량층에 지급된 외방군전 및 왕조 교체에 따른 은거 사대부의 지방 분산으로 농장의 분포가 근기 중심에서 지방 분산의 경향을 띄면서 충주지역이 새로운 농장 개척지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 농장의 지방 확산에 따라 사대부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시간이 종전보다 많아졌고, 그 결과 사대부 문화도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든 점, 충주가 영남대로를 잇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영남지역 인물들과 손쉽게 교류를 가질 수 있었거나 중앙관료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 교통로였다는 지리적 여건 등을 들고 있다(박홍갑(2005), 139-141).

54) 李耜, 『陰崖集』, 『陰崖年譜』.

“李灘叟長吉延慶, 金十清公碩世弼, 李樽巖喜初若水, 許處士靜仲礎, 從遊講學 己卯後 灘叟以校理 退居州之龍灘. 十清以參判, 廢居州之知非川. 樽巖處士, 亦居近數舍. 藍輿小艇, 互相往來, 窮研道義, 樂而忘憂, 鄉黨爲之矜式焉.”

있던 김안국이 드나들었다.⁵⁵⁾ 이로써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양명학 문헌인 『전습록』이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지역은 충주지역이고, 읽은 주체는 사화를 피해 충주로 내려온 사림과 지역의 관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53년(명종 8)에는 홍인우(洪仁祐, 1515~1554)가 매부인 남언경과 함께 퇴계 이황을 방문하니, 퇴계는 왕수인의 『전습록』과 나흠순의 『곤지기』를 빌려주면서, “선학(禪學)과 양명(陽明)을 조심하라”⁵⁶⁾며 충고하였다. 홍인우는 『전습록』과 『곤지기』를 빌려 와서 읽고는 『전습록』에 대하여 “마음만을 안으로 삼고, 천지만물을 외부에 두어서, 격치(格致)를 그르다고 하며, 경약(徑約)을 옳게 여긴다.”⁵⁷⁾ 퇴계와 같이 왕수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558년(명종 13)에는 유성룡(柳成龍, 당시 나이 17세)에 의해서 『양명집(陽明集)』이 발견되었다. 유성룡은 『양명집』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내가 열일곱 살 때 아버님을 따라 의주에서 지냈는데, 마침 사은사 심통원(沈通源)이 연경에서 돌아왔는데, 대간(臺諫)이 통관 점검하지 않았음을 탄핵하여 파직 당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들을 압록강가에 버리고 갔는데, 짐 보따리 속에 이 『양명집』이 있었다. 양명의 글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 글씨 잘 쓰는 아전을 시켜 베껴 두었다. 그리고 상자에 담아 소중하게 간직하지 어느덧 35년이 흘렀다.”라고 『서애집(西厓集)』 1593(선조 26) 9월 8일자 기록에서 당시를 술회하였다.⁵⁸⁾

이렇게 유입된 『양명집』의 간행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 왜구가 안동으로 침입해서 서애의 집과 원지정사(遠志精舍)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보관해두었던 책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을 때에도 『양명집』 몇 권이 수풀 사이에서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더욱 꼼꼼히 보관하도록 자제들에게 일렀다⁵⁹⁾는 기록이 남아 있다.

55) 朴祥, 『訥齋集』附錄 卷2, 「敘述」.

“金十清結屋於忠州知非川上, 先生時補忠州, 爲經營之, 屋形如工字, 兩邊爲寢室, 中廳爲講學之所, 時經己卯斬伐之禍, 以學爲諱, 而惟先生常往來工字堂. 與十清, 慕齋, 金安國國卿, 講道彌篤, 教誨後學. 時慕齋在驪江, 與忠相近, 每春, 先生親往驪州, 見州牧李希輔.”

56) 李滉, 『退溪集』 권13, 「與洪應吉」.

“昨夕對牀論話, 多幸, 但於鄙言, 無所銓揀, 而俱曰是, 此豈有益於懵滯耶? 繼此切望, 痛加辯詰, 庶精義不差也. 兩書皆呈, 但禪學如膏油, 近人則輒汚. 陽明又以雄辯濟之, 尤易惑人, 諸公須戒之, 勿作徐曰仁輩始明終昏而自以爲得.”

57) 洪仁祐, 『耻齋遺稿』, 권2, 「日錄鈔」.

“癸丑: 初十日. 前宵因景浩公聞王陽明傳習錄, 求見則其爲學, 大概務爲好異, 專以一心爲內, 天地萬物爲外, 以格致爲非, 徑約爲是, 故羅欽順著困知記, 以攻其失.”

58) 柳成龍, 『西厓集』卷18, 跋, 「書陽明集後」.

“余年十七, 趨庭義州, 適謝恩使沈通源自燕京回. 臺劾不檢罷, 棄重于鴨綠江邊而去, 行囊中有此集, 時陽明之文, 未及東來. 余見之而喜, 遂白諸先君, 令州吏善寫者謄出. 既而藏篋笥中, 忽忽三十有五年.”

59) 柳成龍, 『西厓集』卷18, 跋, 「書陽明集後」.

“壬辰秋七月, 倭寇入安東, 焚先廬及遠志精舍, 家藏文籍, 蕩然一空, 惟此數卷, 獨全於林薄間. 余得復見之, 不覺泫然以悲, 挾與俱行, 到堤川, 略記梗槩, 俾子弟寶蓄之, 毋更遺失云爾. 癸巳重九前一日跋.”

『전습록』과 『양명집』이 유입된 이후 16세기 조선에서 양명학이 논의된 사실은 꾸준히 발견된다. 후술될 내용은 양명학의 ‘문헌’을 통한 수용이라기보다는 ‘인적교류’를 통한 수용에 관한 것이다. 초기 양명학 문헌의 유입 이후의 조선 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명종(明宗) 말에 불교 중흥의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즉위 후 정주학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양명학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온 명왕조의 사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⁰⁾

1567년(명종 22, 선조 즉위)에 명왕조에서 위시량(魏時亮, 1529~1591)이 용경제(隆慶帝)가 등극한다는 등극조서(登極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위시량은 왕수인의 문묘종사를 주장했던 인물이며,⁶¹⁾ 위시량에 이어 조선에 방문한 구희직(歐希稷), 한세능(韓世能), 진삼모(陳三謨), 조정길(趙貞吉) 등도 모두 양명학자들이었다.⁶²⁾ 또한 임진왜란 당시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으로서 조선에 온 송응창(宋應昌)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원황(袁黃), 왕군영(王君榮), 고양겸(顧養謙), 만세덕(萬世德) 등도 모두 양명학자들로서 이들은 양명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선의 춘방학사(春坊學士)들을 막중(幕中)으로 불러 양명학을 강론했다.⁶³⁾

그리고 양명학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주자학의 한계가 노출되는 시점에 새로운 대안적 사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⁶⁴⁾ 선조(宣祖)는 임진왜란 중에 양명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유성룡에게 양명학을 배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물으니, 이요(李瑤), 남언경(南彦經), 성혼(成渾)을 언급하였다. 특히 성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사람[成渾]은 글을 많이 읽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였다. 그는 중국에 심학(心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문하여 그를 보고 싶다고 했고, 양명(陽明)의 격치설(格致說)도 말하였다.⁶⁵⁾

왕수인을 보고 싶어 했던 성혼의 학문에 대하여 기호유학 가운데에서도 율곡학과와 또 다른 특징⁶⁶⁾으로 거론되는 것이 개방성⁶⁷⁾과 육왕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⁶⁸⁾이다. 성혼의 직전(直傳)

60) 손병국, “李暉光의 陽明學 認識態度와 그 文學的 展開,” 『한국어문학연구』 제61집(2013. 8), 284.

61) 우응순, “장유의 양명학적 세계관과 시세계: 안산 우거 시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9집(2003. 12), 39.

62) 윤남한(1982), 176-178.

63) 손병국(2013), 288.

64) 송석준, “조선조 양명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 『陽明學』 제12호(2004. 8), 11-12.

65) 『선조실록』 선조 27년(1594) 7월 17일(계사).

“其人多讀書, 似非庸衆人也. 渠以爲, 中朝心學之人, 欲訪問而見之, 陽明格致之說, 亦言之矣. 若使陽明, 爲今日經略, 則此賊可以蕩掃矣.”

66) 김선희는, 율곡학과와 구분되는 우계의 학문적 특성에 대하여 성혼은 율곡과 교류하면서도 같은 기호학과를 형성한 정철과는 대립하였다는 점, 성혼이 율곡과의 논쟁에서 퇴계의 학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이에 따라 퇴계의 학통을 계승하는 영남 남인학자들은 성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등으로 미루어 기호학과와 교류하고, 특히 율곡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서인과 기호학과에 속하지만, 이론상 율곡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기호학과 내부에

문인은 175명에 이르고,⁶⁹⁾ 우계학과에 속하는 인물 중 직접적인 사승관계를 가진 인물로는 윤황(尹煌, 1571~1639), 윤선거(尹宣舉, 1610~1669), 윤拯(尹拯, 1629~1714), 나량좌(羅良佐, 1638~1710), 박태보(朴泰輔, 1654~1689), 한영기(韓永箕), 권이진(權以鎭), 정제두(鄭齊斗), 최기남(崔起南), 최명길(崔鳴吉), 최후량(崔後亮), 최석정(崔錫鼎), 신흠(申欽), 이정구(李廷龜), 김상용(金尙容), 장유(張維)가 있으며, 직접적인 사승관계는 없지만 이념적 동질성을 지닌 인물로 권시(權誨), 박세당(朴世堂), 조익(趙翼), 박세채(朴世采), 임영(林泳), 오도일(吳道一), 남구만(南九萬), 오윤겸(吳允謙) 등도 우계학과에 속하는데,⁷⁰⁾ 이들 중에는 양명학을 수용한 최명길, 장유, 정제두가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잡혀가 억류생활을 하던 중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들과 학문교류를 한 강항(姜沆, 1567~1618)은 율곡의 문인이었던 형 강준(姜濬)에게서 글을 배우고, 이후 성혼의 문하에 들어갔다.⁷¹⁾ 나카에 토쥬(中江藤樹, 1608~1648)가 일반적으로 일본 양명학의 시조로 여겨지는데 이론이 없지만 최재목(2000)에 따르면, 나카에 토쥬 이전에 이미 왕수인과 교류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1510년에 막부의 명으로 명왕조를 방문했던 료우안 케고(了庵桂梧, 1425~1514)이다. 그리고 료우안 케고보다 먼저 양명학을 접한 사람이 바로 강항과 깊은 우정을 나눈 후지와라 세이카이다.⁷²⁾ 후지와라 세이카가 근세 일본 주자학의

서도 독자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김선희, “일본 주자학연구에 대한 一考察,” 『日本文化研究』 제30집(2009. 4), 353.).

67) 황의동은 “우계학과는 어느 특정 학설에 교조적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분방하게 학문하는 학문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기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율곡의 성리설에 구애되지 않고, 퇴계 성리학에 호의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자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여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던 것은 당시 정주학이 주류를 이루고, 불가, 도가, 양명학이 이단시되던 학술풍토 속에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하고자 했던 개방적 학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퇴계학과에 비해 율곡학파가 개방적이었다면, 율곡학과에 비해 우계학맥은 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여 폭넓은 수용성을 지녔다”고 보았다(황의동,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풍,” 『범한철학』 제28집(2003. 3), 33-54.).

68) 최완기는, 우계학과는 주희나 이이(李珣)의 학설에 맹종하지 않고 노장의 사상까지 수용하면서 폭넓게 성리학을 이해하며, 한편으로는 양명학이나 실학을 연구하여 성리학의 사상적 모순과 당시 사회의 폐쇄적 풍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최완기, “소론학파의 변신과 양명학,” 『私學』 가을통권 39호(1986. 10), 86-91), 황의동은 우계학과 전체가 육왕학에 대해 호의적이었거나 육왕학의 연구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육왕학에 대한 은밀한 연구태도를 지녀서 한국 양명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계학과에 속해 있다고 보았다(황의동(2003), 47-48.).

69) 이형성은 이 175명 안에 『牛溪先生年譜補遺』 권5에 수록된 『師友錄』을 검토하고, 그 방계자료 『東儒師友錄』, 『朝鮮簞獻寶鑑』, 『東儒淵源錄』 등을 비롯한 기타 『典故大方』,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성혼의 문인이라고 기록된 학자를 모두 포함하였다(이형성, “우계학과(牛溪學派)의 학맥과 학풍,” 『儒學研究』 제25집(2011. 12), 37-69.).

70) 황의동(2003), 31-58.

71) 姜沆, 『睡隱集(附錄)』 『行狀』.

“時牛溪先生愜于群小 門下寥落而公遠往省之 先生稱其端諒.”

鄭殷采, 『續修聖蹟圖後學錄』, 『東方儒林淵源錄』.

“姜沆 字太初號睡隱 晉州人牛溪門人丁卯被虜誦七書謄行教課”

72) 또한 후지와라 세이카가 읽었다고 전해지는 『양명문록(陽明文錄)』은 임진·정유 두 차례에 거친 조선 침략을 계기로

개조(開祖)라고 불리지만 엄밀하게는 주자학을 신봉하면서도 육왕학(陸王學)도 수용하고 있는 주륙(朱陸) 절충론적 입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⁷³⁾ 우계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강항에 의해 수용된 양명학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성리학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1615년(광해군 7)에는 허균(許筠, 1569~1618)이 명왕조에서 귀국하면서 4천여 권의 책을 구입하여 왔는데, 그 안에 양명좌파 이지(李贄, 1527~1602)의 『분서(焚書)』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에서⁷⁴⁾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전습록』과 『양명집』의 간행은 이루어졌을까? 『양명집』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성룡에 의해서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유일하고, 『전습록』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16세기초 양명학이 조선에 전래된 이후 1593년(선조21)에 이르러 왕양명의 『전습록』이 정식으로 간행되었다. 이는 1518년(중종 13) 명에서 간행된 것에 비하면 7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이다”⁷⁵⁾ 라는 연구가 있었으나, 조선왕조실록, 문집, 책판목록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서 파악되는 국내에 소장 『전습록』과 『양명집』은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양명학 비판문헌의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2 양명학 비판 문헌의 수용

주자학은 북송대 주돈이, 소옹, 장재와 정호·정이 형제에게서 기원하는데 이들의 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다. 중국에서는 원대에 주자학이 관학으로 채택되면서, 국가에 의해 주자학이 학문적 정통성과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도덕과 의리를 근본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학문을 강조하는 주자학에 반하여, 개인의 주체적 자율성과 도덕적 자각을 중시하는 양명학의 유행은 관학파들에게 국가의 기강을 위협하는 사상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양명학이 가장 성행하였던 강서지방에서 관학파들의 건의에 의하여 명왕조의 조정에서는 1522년, 1529년, 1537년의 세 차례에 걸쳐서 ‘양명학전습금지령(陽明學傳習禁止令)’을 내렸다. 이후 곧 침릉(詹陵, 생물년 미상)의 『이단변정(異端辨正)』(1525년 初刊), 나흠순의 『곤지기(困知記)』(1534년 初刊), 진건의 『학부통변(學菴通辨)』(1548년 初刊) 등의 양명학 비판서적이 저술·간행되었다.

일본이 조선으로 가져간 책일 가능성이 있다(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2000), 143-146.).

73) 김선희(2009), 355-361. ; 이호윤, “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 『日本近代學研究』 제46집(2014. 11), 293-298.

74) 강명관, “조선 후기 양명좌파의 수용,” 『오늘의동양사상』 제16호(2007. 4), 127.

75) 정덕희, “陽明學의 性格과 朝鮮的 展開,” 『대동한문학회지』 제14집(2001. 6), 13.

고려 말 원왕조에서 전래되기 시작한 주자학은,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수용되어 절대적 권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장사상과 불교는 이단으로 배척되었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심기리편(心氣理篇)』과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저술하여 고려시대 불교적 정신풍토를 배척하는 데에 유학을 치밀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권근(權近, 1352~1409)은 정도전의 『불씨잡변』을 주석하여 그 중요성을 입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교경전 주석서인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과 성리학 입문서인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하여 성리학 중심으로 조선 유학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6세기에도 이어져왔고, 『이단변정』, 『곤지기』, 『학부통변』 등 양명학 비판서적들은 조선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읽히고 출판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이단변정(異端辨正)』의 수용

저자인 첨릉은 명대 세종(世宗) 초기 사람으로 정주학자이면서 철저한 관학파였다. 첨릉은 『이단변정』의 서문에서 ‘사악함을 물리치고, 바름을 숭상하고자 『이단변정』을 저술하고 서명을 정하였다’고 밝혔다.⁷⁶⁾ 이 책에는 이단을 비판하는 명분으로 많은 불교서, 양명학서, 기타 도교 관련 서적이 소개되었으며, 양명학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는 육왕학의 본거지인 강서지방이 『이단변정』이 출간지인 까닭에 그곳의 학단과 발생할 수 있을 마찰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⁷⁷⁾ 1525년에 출간되었다.⁷⁸⁾

조선에서는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즉위하고 8개월 만인 1545년 7월에 승하하였고,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을 대신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훈척세력은 불교를 중흥하였다.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아 봉은사 주지로 임명된 승려 보우에 의해서 선종과 교종의 양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자 사림은 불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이단을 배척하는 책들이 사림에 의해 국가에서 반포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이단변정』이었다.

신영(申瑛, 1499~1559)은 1551년(명종 6)에 명왕조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단변정』을 구해 와서, “신이 중국에서 구한 이 책은 당시의 이름 있는 선비가 편집한 것으로, 오도(吾道)를 보위하고 사설(邪說)을 비판하는 선현들의 격언을 빠짐없이 모았으며 조목마다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붙였는데 그 입론(立論)이 매우 간절하고 분명하여 세상 선비들이 보기 드문 논설이 또한 많습니다. 경연에서 강독하시는 여가에 특별히 힘써서 을람(乙覽) 하신다면 성상의 학문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⁷⁹⁾라고

76) 詹陵, 『異端辨正』, <異端辨正自序>, 臺北, 廣文書局 印本. “爲黜邪崇正之計, 名曰異端辨正.”; 정덕희, “16세기 명의 陽明學批判書籍 評釋,” 『陽明學』 제2호(1998. 12), 196쪽에서 재인용.

77) 정덕희(1998), 196.

78) 정동국, 정덕희, 『공자와 양명학』 (서울: 태학사, 1999), 194.

하며 이 책을 보도록 권유하자, 명종은 곧바로 간행을 명하였다.⁸⁰⁾ 16세기 조선에서는 『이단변정』이 성리학을 보위하고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 수용되어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51년(명종 6) 금속활자 본인 을해자로 간행된 판본은 일본 나이가꾸분포(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⁸¹⁾

4.2.2 『곤지기(困知記)』의 수용

나흠순은 철저한 주자학자로 평소 왕수인, 담약수 등과 학문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자주 했으며, 왕수인을 비판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해진다.⁸²⁾

『곤지기』의 서명은 『논어(論語)』의 “곤이지지(困而知之)”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심하고 연찬해서 얻은 것을 의미하는데⁸³⁾ 1528년에 편찬하였고, 1534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다.⁸⁴⁾ 『곤지기』에서는 양명학을 유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간주하여 왕수인이 주장한 ‘격물치지(格物致知)’, ‘심즉리(心即理)’에 대하여 반박하고,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을 비판하였다.⁸⁵⁾ 이 책이 지니는 사상사적 의미는 주희의 주리적 이기이원론(主理的 理氣二元論)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여 이(理)보다도 기(氣)를 근원적 존재로 보는 주기적 일원론(主氣的 一元論) 또는 주기적 이기일체론(主氣的 理氣一體論)으로 새로운 철학적 방향을 모색한 데에 있다.⁸⁶⁾

이 책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시기는 홍인우가 1553년(명종 8) 이황을 만나서 『전습록』과 함께 『곤지기』를 읽고 논평하면서부터이다.⁸⁷⁾ 우선 이를 토대로 살핀다면 『곤지기』의 조선 유입 시기는 1553년 이전으로 볼 수 있고, 홍인우보다 이황이 먼저 이 책을 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후에 『곤지기』를 읽은 노수신은 주희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곤지기』를 읽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⁸⁸⁾ 『곤지기』가 주자학에 공을 세운 것으로

79)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3월 16일(갑진).

80)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3월 27일(을묘).

81) 복제본 소장기관: 국립중앙도서관.

82) 진래(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434. ; 정동국, 정덕희(1999), 196.

8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제공, 『곤지기』 해제 [2017.4.7. 접속].

84) 정동국, 정덕희(1999), 196-197.

85) 주자의 만년의 학설은 양명과 일치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왕수인이 『朱子文集』에서 가려 뽑아서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에 수록한 書翰 중에는 주자 중년 이전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당시 羅欽順은 왕수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年代 착오를 지적한 바 있다(이동희(李東熙). “陳建의 『學菴通辨』과 그의 朱子學,” 『儒教思想研究』 제7집(1994. 3), 739-741.).

86) 정동국, 정덕희(1999), 196-199.

87) ① 洪仁祐, 『耻齋遺稿』 「日錄鈔」 <癸丑> 初八日夕, 與時甫往拜景浩公, 達夜論討, 深服此人優入高明之域, 可爲師也 ② 洪仁祐, 『耻齋遺稿』 卷1 「書」 <上退溪書> 前迫日暮, 未作穩質爲恨, 就省困知記, 試思這做學多有精到處, 然其以人心爲已發, 道心爲未發, 作兩般看, 最是錯認了, 豈辨倒王陽明差路乎, 然則羅整菴亦未可謂儘出正者, 天下道學, 難得嫡派如是, 未審高明以爲如何. ③ 洪仁祐, 『耻齋遺稿』 「日錄鈔」 <癸丑> 初十日, 前宵, 因景浩公聞王陽明傳習錄, 求見則其爲學, 大概務爲好異, 專以一心爲內, 天地萬物爲外, 以格致爲非, 徑約爲是, 故羅欽順著困知記, 以攻其失.

평가했다.⁸⁹⁾

그러나 이황은 『곤지기』에서 ‘도심은 성(性)이고 인심은 정(情)이니, 체와 용으로 구분하여 각기 미(微), 위(危)’라고 한 것에 대하여 ‘해가 되는 것이 심하다’고 비판하였다.⁹⁰⁾ 기대승도 도심과 인심을 성과 정으로 구분하고 양지를 천리로 파악하는 나흠순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였는데⁹¹⁾ 비록 『곤지기』에서 나흠순이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곤지기』에서 드러나는 나흠순의 논리가 정주학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곤지기』의 간행에 관한 기록은 1585년(선조 18) 목판본 『고사촬요』 책판목록의 경상도 성주(星州) 책판목록에 나와 있는데,⁹²⁾ 계축(癸丑)년에 개간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홍인우가 이황으로부터 빌려 읽은 1553년(명종 8)에 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전하는 1553년 간행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는 정주학자들에 의해 『곤지기』가 비판 받아온 뒤로는 널리 읽히지 못하였던 때문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곤지기』 필사본 2책은 일본 궁내성(宮內省)에 보존되었다가 1965년에 돌아온 반환문화재이다.⁹³⁾

4.2.3 『학부통변(學部通辨)』의 수용

『학부통변』은 진건이 허우관현(侯官縣, 지금의 福州) 교유(教諭)로 지내면서 주희와 육구연의 학설을 비교 연구하여 저술한 『주륙편년(朱陸編年)』 2편을 1548년에 개정하여 출판한 것으로,⁹⁴⁾ 전편(前編) - 후편(後編) - 속편(續編) - 종편(終編)으로 되어있고, 각 편은 다시 상권, 중권, 하권으로 나뉜다. 진건은 『학부통변』에서 왕수인이 『주자만년정론』에서 말한 주륙은 초기에는 달랐으나 만년에는 같았다는 설(朱陸早異晚同說)에 대하여 반박하고, 주륙은 초기에는 같았으나 만년에 달랐다고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적 차이를 설명하고 주희 사상의 전후순서와 본질을

88) 盧守愼, 『蘇齋集』, 「困知記跋」.

89) 盧守愼, 『蘇齋集』, 「人心道心辨」.

90) 李滉, 『退溪集』 卷17.

“若羅氏困知記, 則又謂道心, 性也, 人心, 情也, 至靜之體不可見, 故曰微, 至變之用不可測, 故曰危, 此其爲說頗近似, 非湛氏之比, 然其爲害則爲尤甚.”

91) 奇大升, 『高峯集』, 卷2 「論困知記」.

“理氣一物之說, 道心人心性情之云, 亦皆因此而誤焉” ;

『高峯集』, 卷3 「答先生問目」.

“羅整菴以人心道心爲性情, 其說見困知記, 盧丈力主羅說, 某嘗叩之, 亦以羅說爲然, 某頗辨之, 而不以爲然, 某謂長者於理氣之說, 看是一物, 是二物耶. 盧丈答曰, 前賢雖有曰理曰氣之不同, 然亦豈有異體耶, 不記曲折, 大概如是, 此可見盧丈於理氣上錯見也. 整菴以理氣爲一物. 其見甚乖, 某曾窺見其病源, 欲求困知記, 細訂其誤, 而村居僻陋, 求之不得, 可嘆也.”

92) 鄭亨愚,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24.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63.

93) “日本の 불모서 풀린 文化財 1,321點, 돌려줘도 아깝잖은 것만” 『동아일보』, 1965년 6월 24일자.

94) 이동희(1994), 737. ; 정동국, 정덕희(1999), 200-201.

설명하였다.⁹⁵⁾

조선에서 『학부통변』은 1566년(명종 21)에 퇴계가 『심경후론』에서 언급한 것이 가장 초기의 기록으로 파악된다. 퇴계는 『심경후론』에서 정민정이 저술한 『심경부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하면서도, 그의 제자 조목(趙穆, 1524~1606)이 집중적으로 문체 제기한 정민정의 상산학적 학문 경향⁹⁶⁾과 『도일편(道一編)』⁹⁷⁾에 나타난 주자만년정론설에 대하여 “진건이 『학부통변』과 『편년고정(編年考訂)』을 저술하여 주희와 육구연 학설의 같고 다름과 옳고 그른 귀추를 밝혀놓았다”고 하였으며,⁹⁸⁾ “『도일편』에서와는 달리 『심경부주』에서는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이 일치한다고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⁹⁹⁾ 퇴계가 정민정의 『심경부주』를 중시하면서도 주자학과 상산학을 철저히 분리하는 입장을 『심경후론』을 통해서 밝히면서 나흠순의 『곤지기』와 진건의 『학부통변』을 언급한 것은,¹⁰⁰⁾ 나흠순과 진건으로 이어지는 정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경부주』를 수용하고 그의 학문을 전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학부통변』의 간행 시기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집(眉巖集)』에 수록된 『경연일기(經筵日記)』와 『선조실록』 1573년(선조 6) 3월 17일자에서 파악할 수 있다.

1573(선조 6년) 3월 17일 조강(朝講)에서 “왕수인이 꺼림 없이 스스로 훌륭한 체하며 주자를 험뜯자 중국의 성급한 자들이 부화뇌동하였다. 진건이 『학부통변』을 지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단을 물리치는 정론(正論)이니, 교서관을 시켜 개판(開板)하고 호남과 영남에서도 개판하자”고 하자

95) 이동희(1994), 737-749.

96) 이황 제자들의 『심경부주』에 대한 비판과 『심경후론』을 통한 퇴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홍원식 외(2008), 91-107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97) ‘도문학(道問學)’을 중시한 주희와 ‘존덕성(尊德性)’을 중시한 육구연이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주륙화회론(朱陸和會論)’과 도문학을 중시하던 주희가 만년에는 존덕성 위주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의 선구적인 제안자였던 정민정(程敏政)이, 주희와 육구연이 초기에는 의견이 달랐으나, 만년에는 의견이 합치해 갔다는 자신의 가정에 맞추어서 주희와 육구연의 논쟁과 사고 진행 과정을 편집한 책이 『도일편』이고, 『심경부주』는 『도일편』의 관점을 확대해 나간 후편에 해당한다. 『도일편』은 1489년에 완성되었고, 『심경부주』는 1492년에 완성되었다. 『심경부주』의 내용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바는, 성리학의 이기·우주론과 격물치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대신, 『도일편』에서 존덕성의 방법으로 거론한 敬공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도문학’의 비중을 낮추면서, 구체적인 ‘존덕성’의 방법으로 『심경부주』에 이르러 수양론이 재편성 된 것이다. 『심경부주』는 經文이 1/10, 진덕수 원주가 1/10, 정민정 부주가 8/10을 차지하는 만큼 정민정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주자학에 대한 신뢰가 강했던 이황 마저도 조목(趙穆, 1524~1605)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김낙진(2008), 255-274.).

98) 李滉, 『退溪集』, 卷41, 「心經後論」.

“其三則陳建論公道一編說也, 其說云. 篁墩欲彌縫陸學, 乃取朱陸二家言語, 早晚一切顛倒變亂之, 矯誣朱子, 以爲早年誤疑象山, 晚年始悔悟, 而與象山合, 其誤後學甚矣 因爲之著學菴通辨 編年考訂, 以究極同異是非之歸云. 噫, 信斯言也, 篁墩其果誤矣, 其爲學, 果有可疑者矣.”

99) 李滉, 『退溪集』, 권41, 「心經後論」.

“況只引朱說而補以諸儒發明朱說之條, 未嘗一言及於陸氏之學, 以爲朱子晚悔而與此合, 如道一編之所謂乎.”

100) 李滉, 『退溪集』, 권41, 「心經後論」.

“許魯齋嘗曰, 吾於小學, 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 愚於心經亦云, 惟草廬公之說, 反復研究, 終有伊蒲塞氣味, 羅整菴之論得之, 學者當領其意而擇其言, 同者取之, 不同者去之, 其亦庶乎其可也.”

선조가 “왕수인도 재기(才氣)가 있고 공업(功業)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유희춘은 “왕수인은 성질이 어그러져 강박(強愎)하고 공손하지 않으며 주자가 저서하여 입언(立言)한 것을 혈뜬어 ‘홍수나 사나운 짐승의 재앙보다 참혹하다’ 하였으니, 그의 설이 사특하기가 막심합니다.”라고 왕수인을 비판하였다.¹⁰¹⁾

1573(선조 6년) 4월 12일 조강(朝講)에서 유희춘은 “지난번 『학부통변』의 판(板)을 여러 곳에서 개간(開刊)하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위에서 번거롭다고 분부하셨는데, 두세 곳에서 개판(開板)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한 곳에서 개판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라고 개판을 거듭 요청하였고, 같은 날 『학부통변』을 간행하라는 전교가 교서관에 내려졌다.¹⁰²⁾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교정을 맡았던 유희춘은 『학부통변』을 간행함으로써 양명학을 비판하고, 주자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면서, 주자학에 비판적인 사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3년 후인 1576년(선조 9) 3월에 가까이 왕래하는 전라도 관찰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에게 『두시(杜詩)』와 함께 『학부통변』을 인쇄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¹⁰³⁾ 1585년(선조 18)에 간행된 『고사촬요』 책판목록의 전주(全州) 조에 수록되어 있는¹⁰⁴⁾ 『학부통변』은 1573년(선조 6)에서 1576년(선조 9) 사이에 전주에서 판각·인출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1576년에 간행된 『학부통변』이 전체 12권 4책 가운데 3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초간년도는 1576년으로 추정된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목판본이 전편(12권 4책) 소장되어 있다. 고운기(2009)에 의해서 일본 고분고(御文庫)에도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¹⁰⁵⁾

양명학 문헌인 『전습록』과 『양명집』은 1518년(중종 13)에 유입되었으나 이후 국내 간행본은 전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간행본만 전하고 있다. 반면에, 『이단변정』, 『곤지기』, 『학부통변』 등 양명학 비판 문헌은 명왕조로부터 유입된 지 오래지 않아 각각 금속활자 또는 목판으로 간행되어 유포되었다.¹⁰⁶⁾ 이는 조선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인 주자학에 반하는 양명학 문헌은 유포되기 어려웠으며,

101)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3월 17일(정유).

102)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4월 12일(신유).

103) 柳希春, 『眉巖日記』 1576년 3월 15일.

“監司送新印養蒙大訓一件, 以書問行公去留, 余答以不可不行公之意, 仍請杜詩及學菴通辨印送云云.”

104) 정형우(鄭亨愚), 윤병태(尹炳泰), 『한국책판목록총람(韓國册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473.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53.

105) 고운기,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서울: 현암사, 2011), 148-181.

106) 16세기 양명학 비판 문헌의 조선 유입과 간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서명	저자	명(明)	조선		
		초간년도	전래년도	초간년도	판종
『이단변정』	첨릉	1525년	1551년	1551년	금속활자본
『곤지기』	나흠순	1534년	1553년 이전	1553년	목판본
『학부통변』	진건	1548년	1566년 이전	1576년	목판본

양명학 비판 문헌은 적극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조선에서 『전습록』이 간행되지 않은 채 『전습록』을 비판하는 서적들이 간행·유포되었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양명학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지식이 중점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5. 결 론

16세기 양명학 관련 문헌이 유입된 초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주자학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주자와는 다소 이질적인 육구연의 학문에 대해서도 주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학자들 간에 무극태극논쟁, 사단칠정논쟁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사유의 폭이 넓어지고 학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기묘사화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적 방향을 모색하면서 육구연 및 왕수인의 학문이 담긴 『상산집』과 『전습록』을 큰 거부감 없이 읽고 토론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다음 세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퇴계가 양명학을 비판한 이후 양명학 문헌인 『전습록』, 『양명집』 등은 전존본도 없고 간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단변정』, 『곤지기』, 『학부통변』 등의 양명학 비판 문헌은 명왕조로부터 유입된 후 오래지 않은 시기에 각각 금속활자 또는 목판으로 인출되었다. 이는 서적의 확산 현상이 엇갈린 것으로, 이단의 학문으로 인식된 양명학 문헌은 확산될 수 없었고, 양명학을 비판하는 문헌, 즉 이단을 배척하는 문헌은 확산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양명학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란 이후 조선의 학문과 사상은 주자학 중심으로 교조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사상의 자유로운 확산이 점차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谿谷漫筆』, 『高峯集』, 『訥齋集』, 『慕齋集』, 『木齋集』, 『眉巖日記』, 『西厓集』, 『穌齋集』, 『睡隱集』, 『十清集』, 『十清軒集』, 『五洲衍文長箋散稿』, 『陰崖集』, 『靜觀齋集』, 『朝鮮王朝實錄』, 『中國歷代經籍典』, 『耻齋遺稿』, 『退溪集』, 『晦齋集』.

2. 단행본

강웅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포의아』. 서울: 민음사, 2014.
고운기.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서울: 현암사, 2011.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 동양사학회. 『개관 동양사(概觀 東洋史)』.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4.
- 신성곤, 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파주: 서해문집, 2016.
- 신항림. 『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말하다』. 서울: 심산출판사, 2015.
- 윤남한. 『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 서울: 집문당, 1982.
-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정동국, 정덕희. 『공자와 양명학』. 서울: 태학사, 1999.
-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4.
- 진래(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 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200.
-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서울: (주)이학사, 2005.
- 풍우란 지음,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하』. 서울: 까치글방, 2011.
-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서울: 예문서원, 2007.
-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8.

3. 학술지 논문

- 강명관. “조선 후기 양명좌파의 수용.” 『오늘의동양사상』 제16호(2007. 4). 125-148.
- 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161-189.
- 金洛眞. “程敏政 사상의 朱陸 和會의 특성과 조선 성리학자들의 반응.” 『儒教思想研究』 제31집(2008. 3). 253-285.
- 김선희. “일본 주자학연구에 대한 一考察.” 『日本文化研究』 제30집(2009. 4). 347-364.
- 김용현.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제19집(2011. 12), 35-79.
- 김진성. “『대학(大學)』의 경전(經典) 해석학적(解釋學的) 연구(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5집(2006. 4). 125-160.
- 박홍갑. “16세기 전반기 정국 추이와 충주사림의 괴화.” 『史學研究』 제79호(2005. 9). 125-166.
- 손병국. “李睟光의 陽明學 認識態도와 그 文學的 展開.” 『한국어문학연구』 제61집(2013. 8). 277-304.
- 송석준. “조선조 양명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 『陽明學』 제12호(2004. 8). 5-44.
- 송정숙. “『대학연의(大學衍義)』가 조선조(朝鮮朝) 통치이념서(統治理念書) 편찬에 미친 영향.” 『書誌學研究』 제20집(1996. 6). 171-200.
- 송정숙. “韓國에서 『大學章句』의 受容과 展開樣相.” 『書誌學研究』 제5·6합집(1990). 331-353.
- 오종일. “양명(陽明) 전습록(傳習錄) 전래고(傳來考).” 『철학연구』 제5집(1978). 67-86.
- 육영정. “동빈문고의 中國 翻刻本과 그 가치: 『近思錄』과 『韻府群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2012. 8). 135-159.

- 우응순. “장유의 양명학적 세계관과 시세계: 안산 우거 시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9집(2003. 12). 35-59.
- 이동희. “陳建의 『學菴通辨』과 그의 朱子學.” 『儒敎思想研究』 제7집(1994. 3). 737-749.
- 이상익. “왕양명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에 대한 새로운 비판.” 『한국사상과 문화』 제18집(2002. 12). 345-377.
- 이호윤. “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 『日本近代學研究』 제46집((2014. 11). 287-305.
- 이형성. “우계학과(牛溪學派)의 학맥과 학풍.” 『儒學研究』 제25집(2011. 12). 37-69.
- 전재동. “조선(朝鮮) 유학자(儒學者)들의 ‘朱子晩年定論說(주자만년정론설)’ 수용과 비판에 관한 연구.” 『영남학』 제12호(2007. 12). 157-192.
- 정덕희. “16세기 明의 陽明學批判書籍 評釋.” 『陽明學』 제2호(1998. 12). 193-216.
- 정덕희. “陽明學의 性格과 朝鮮的 展開.” 『대동한문학회지』 제14집(2001. 6). 5-35.
- 최완기. “소론학파의 변신과 양명학.” 『私學』 가을통권 39호(1986. 10). 86-91.
- 최재목. “『진습록』—우리 글로 만나는 왕양명, 양명학의 진면목은?” 『오늘의 동양사상』 제9호(2003. 9). 256-277.
- 최재목. “『傳習錄』에 대하여.” 『陽明學』 제3호(1999. 12). 143-158.
- 황의동.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풍.” 『범한철학』 제28집(2003. 3). 31-58.

4. 인터넷 자료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